

선망방화(羨望放火)

이런 사람, 특히 교토(京都) 지방의 사람들은 김카쿠지(金閣寺)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생각해 왔다. 金閣寺는 넓은 연못가에 지어진 3층 누각으로서 1398년에 준공되었는데, 외관을 금으로 장식하였기 때문에 김카쿠(金閣)라 불렸다. 金閣이 석양의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사될 때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어떤 건축물 보다 아름답다고 한다. 金閣은 본래 명문가의 별장으로 세워진 것이었으나 후에 선찰(禪刹)의 불당이 되어 金閣寺라 부르게 되었다.

1950년 7월 2일 보슬비가 내리는 새벽, 550여년 동안 일본인들이 그렇게 아끼던 金閣寺는 어처구니없게도 어린 수도승의 계획 된 방화(放火)로 형체도 없이 불 타 없어지고 말았다. 당시의 사고 조사에 의하면 말더듬이인데다가 못생긴 얼굴로 열등감을 갖고 있던 이 절의 한 수도승이 제 또래의 민간인들이 여자와 함께 절구경을 오는 모습을 보고 심한 부러움(羨望)을 느낀 나머지 불을 지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으로 삼는 이상행동자를 가리켜 방화광(放火狂, Pyromania)이라고 말한다.

방화광은 대개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주벽이 심한 사람 또는 성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 권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이며 이 가운데 특히 성적인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타는 불길을 자신의 남성으로 생각하여 쾌감을 느끼거나 또는 불길에서 나는 소리를 여체의 뼈마디 소리로 인식하여 희열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증상이 나타나는 연령은 청소년층이 많으며 여자보다 남자 쪽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철학자로 알려진 바슬라르는 “불의 정신분석”에서 방화를 섹스의 연소(燃燒)라고 했다. 또, 톨스토이의 소설 “크로이체르 소나타”에서는 질투에 불타올라 아내를 죽인 주인공이 걱정을 가눌 수 없을 때 마다 종이 나무랑이에 불을 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낙태가 어려웠던 옛사회에서 불의의 관계로 아이를 배게 되었을 때 이를 귀태(鬼胎 : 도깨비불과 교접하여 임신함)로 위장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연속하여 불을 지르는 일이 많았다고 전해지며, 민속적으로 이를 구제하여 주었다함은 수절이 강요되었던 그 시절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겠다.

1991년 한해동안 국내에서 발생된 1,312건의 방화사건의 원인으로서, 가정불화가 216건, 싸움 157건, 비관이 83건 등의 순서로 집계되었는데 이러한 방화원인의 이면에는 각종의 선망(羨望)이 바닥에 깔려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예전에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4대 강력사건이라 하였으나 요즘에는 방화가 제외되고 그대신 폭력과 절도가 추가되어 그것을 5대 강력사건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방화범죄에 대한 대응이 약화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화재보험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로 보는 시각도 있다.

金 東 一 / 危險管理部 課長